

[리뷰]

가족 담론으로 읽는 염상섭의 『삼대』

임 선 숙*

I. 근대정신을 가진 사실주의 작가

염상섭은 소설, 수필, 평론 등 500여 편의 글을 남길 정도로 많은 작품을 창작한 작가이다. 현재는 소설가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비평가로 먼저 활동을 시작했으며 1920년대 초 대표적인 비평가이기도 했다. 그는 비평가였던 만큼 날카로운 비판력과 통찰력은 물론 투철한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리얼리즘 문학을 추구했던 그의 작품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의 초기작인 「표본실의 청개구리」(1921), 「암야」(1922), 「제야」(1922) 등은 일제 강점기 당시 젊은 지식인들의 방황과 고민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문학적 형상화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만세전』(1922)을 기점으로 날카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문제의식을 작품에 드러낸다. 이 작품에서는 일본에서 조선까지의 여정을 통해 식민지의 암울한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지만 개혁을 실천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잘 그려낸다. 일부 학자들은 이 작품을 우리나라 근대 소설의 시초로 보기도 하는데, 이광수의 『무정』(1917)보다 근대적 자아(개인의 발견)의 모습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염상섭의 뛰어난 현실 관찰력은 『삼대』(1931)에서 잘 드러난다. 이 작품은 3대를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 가족의 삶과 갈등, 가치관의 충돌 등을 사

* 단국대 교수, today95@hanmail.net

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해방 직후, 「임종」(1949), 「두 파산」(1949) 등 해방기의 혼란스러웠던 사회상을 드러낸 작품을 발표하는데, 「임종」은 삶과 죽음 앞에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두 파산」은 등장인물 옥임의 정신적 파산과 정례모친의 물질적 파산이라는 두 종류의 파산을 통해 광복 직후의 물질 만능주의 세태를 그려 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후의 작품들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중 『삼대』는 가족사 소설로서 당시의 시대 상황과 세대 간의 충돌 등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존재했던 가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작품이 가족사 소설로 평가받는 만큼 작품에 반영된 가족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삼대』의 의미와 당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읽어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II. 전근대와 근대적 가치관의 혼재와 충돌의 시기

『삼대』의 배경이 된 시기는 1920년대 일제 강점기로 봉건적 가치관에서 근대적 가치관으로 이행되는, 즉 전근대와 근대적 가치관이 혼재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봉건적 가치관으로는 유교적 가치관, 축첩제도, 남아선호 사상 등을 들 수 있다. 조의관은 유교적 가치를 상징하는 ‘족보’와 ‘사당’을 지키는 일을 과업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이는 근대 사회로 이행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봉건시대의 신분관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조의관은 후처로 수원집을 두고 있으며, 소위 개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상훈도 흥경애와 김의경을 첩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조의관은 손자까지 있는 노인이지만 수원댁을 통해 아들을 더 낳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하며 집안의 모든 권리를 손자인 덕기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

한편 근대적 가치관도 혼재했다. 우선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과 이와 맞물려 사회주의 이념이 유행했던 시기라는 걸 지적할 수 있다. 『삼대』에서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 ‘돈’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회주의 운동 등은 당시 자본을 중심으로 한 계급의식과 계급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1920년대는 봉건주의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함께 존재했던 시기로, 이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 등 이념이 충돌했다고 할 수 있다.

III. 1920년대 가족 담론과 공리적 가족주의

문학이란 작품이 창작된 시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작가의 창의적인 역량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회와 시대를 벗어나 창작된 작품은 있을 수 없다. 작가는 한 사회와 문화 안에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형상화해서 작품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품은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하나의 창작물¹⁾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학 현상은 개인과 집단을 넘어 제도와 사회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작품의 내재적 요소뿐 아니라 외재적 요소도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작품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는 푸코의 담론²⁾ 개념과 연결할 수 있다. 원래 담론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에 따라 형성되는 언어형식인데, 푸코는 인간 주체가 구성되는 과정을 권력 작동 과정의 하나로 보고 다양한 관계를 통해 권력이 생산되고 이 생산 과정은 담론이라는 매개 수단을 거친다고 본다. 즉 한 사회 안에서 형성된 담론은 당대 권력의 생산과 작동의 과정 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삼대』가 창작된 시기이면서 배경이 된 1920

1) 현택수, 『문학과 권력-부르디외의 사회학의 이해』, 나남출판사, 1998, pp. 23-24.

2) 라마자노 글루, 『푸코와 페미니즘-그 긴장과 갈등』, 최영 외 역, 동문선, 1998, p. 32.

년대에는 가족에 어떻게 권력이 작동되었는지 당시의 가족 담론을 살펴보고, 이런 담론들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드러나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한국의 핵심가치는 가족주의, 인정주의, 혈연주의 등인데, 그중 가족주의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변형되어 온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염상섭의 『삼대』가 쓰여졌던 1920년대의 가족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의미부터 살펴봐야 한다.

가족의 의미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그중 미셸 바렛은 가족의 의미를 두 개의 관점으로 접근³⁾한다. 하나는 가족이 사회, 경제적 제도로는 것이다. 가족은 근친관계를 바탕으로 조직된 제도로 생계 담당자와 아이 양육자 간의 분업을 중심으로 한 가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가족이다. 가족생활에 대한 전형적인 상은 공적인 제도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이란 생계와 경제적 단위지만,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근대적 가족의 의미는 근대적 가족의 개념과는 사뭇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전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은 정석적으로 기대는 관계라기보다는 생산, 재생산 그리고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적 더 나아가 현대적 의미에서의 가족은 구성원들의 물리적인 안정을 넘어서 사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안식처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정착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루게 되면 경제적 생산 단위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낭만적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안정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의 부재나 무능이라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일제 강점기는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되는 시기이면서 일제의 수탈로 지

3) 미셸 바렛, 메리 메틴토시. 『가족은 반회적인가』, 김혜경 역, 여성사, 1994, pp. 17-18.

식인들조차 경제활동을 하는 게 녹록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많은 소설들에서 남성 가장의 모습은 무능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일제의 징용 혹은 독립운동에 투신해서 부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가족은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 인식되었으며, 남성 가장이 부재한 경우 여성들이 적극적인 활약을 통해 그 부재를 메우고 가정을 유지하는 가부장적 명분에 충실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혼란기에 계급과 젠더의 모순을 가진 근대적 가족주의는 크게 두 개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공리적 가족주의⁴⁾이다.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은 생산과 소비의 공동체이며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사회로부터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물론 공리적 가족주의의 의미도 시대에 따라 변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봉건시대에 상층민들에게는 가문의 명예라는 공리적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하층민들에게는 의식주라는 생계를 해결해 주는 곳이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전쟁, 산업화를 거치면서 가족은 생존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직체로 기능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정착되면서 가족은 물질과 소비를 통해 가족 간의 계급 차이를 확인하는 곳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1920년대의 경우 봉건시대에서 근대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가족은 명예와 생계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물론 계급 간의 차이를 인지하게 하는 것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 여전히 가족 구성원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족 집단 전체의 안녕이 우선시 되었다. 한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대 초, 봉건적 질서와 권위는 구시대적인 아버지와 동일시된다. 그래서 이 시기 『삼대』를 포함해서 많은 문학 작품에서 아버지는 주로 부정하고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른 하나는 정서적 가족주의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안정되고 근대화됨에 따라 사회의 생존 경쟁에서 발생한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정서적 기능이 가족의 주요 기능으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으로

4) 함인희, 「사회변화와 가족」,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2001, p. 47.

산업화되었던 1960~70년대에 가족 집단보다는 구성원 개인의 행복 추구가 중요해지면서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기능을 기대했는데, 주로 어머니로부터 이런 역할이 요구되었다. 이 시기 소설들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삼대』의 가족은 정서적 가족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공리주의적 가족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조의관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족보까지 매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봉건적 의미에서의 공리적 기능을 중요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상훈은 봉건주의적인 아버지의 질서를 부정하고 아버지와 충돌하지만, 한편으로는 생활과 생계를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병화에게 덕기의 가족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 즉 1920년대는 가족 구성원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족 전체의 안정이 중요하게 생각되었으며, 가족은 계급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곳임과 동시에 명예와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IV. 가족 담론으로 읽는 『삼대』

지금까지 살펴본 『삼대』에 드러난 공리적 가족주의는 이 작품에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다시 분석될 수 있다. 하나는 조의관, 상훈, 덕기 삼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래, 필순 등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우선 조의관 집안을 중심으로 드러난 공리적 가족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봉건사회에서 가족은 가부장적이며 가문의 명예와 명분이 중시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근대 사회로 넘어올수록 명예와 명분에서 경제적 가치라는 자본의 문제로 점점 대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조의관은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인물이면서도 자본의 가치를 인

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의관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족보를 매매하고 제사를 중요시 여기며 사당을 지키려 하고, 또 한참 어린 수원댁에게서 아들 한 명이라도 더 보았으면 하는 남아선호 사상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안의 위세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것도 인지하고 있다. 조의관은 구시대적 인물이지만 가문의 명예는 족보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도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가족 안에서의 위치 또한 가부장적 가장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 집안의 경제를 관장하고 금고와 열쇠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의관의 집을 중심으로 집안사람들이 모이기도 한다. 공리주의적 가족주의가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가장의 경제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가장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조의관이 보여주는 공리적 가족주의는 봉건적 기능과 질서에 가깝다.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족 집단, 즉 가문의 안정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끝까지 금고와 사당의 열쇠를 지킴으로써 봉건적인 가족 이데올로기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훈과 덕기는 이런 조의관에게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훈은 아버지의 재력에 기대고 있지만,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아버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이는 조의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없는 행동이며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상훈은 봉건적 질서, 즉 아버지의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축첩을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상훈은 과도기의 여러 사상들이 혼재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보여주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은 혼란한 시대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는 기독교를 믿고 고등교육을 받은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이지만, 아버지의 자본에 기대고 싶어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봉건 사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첩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봉건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근대적 가족 이데올로기로 넘어가는 시기, 두 시대의 모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과도기적인 인물로 가족을 생계와 쾌락적 소비를 제공해주는 공리적인 의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덕기는 어떻게. 덕기 역시 아버지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 부정한다. 상훈처럼 아버지에게 도전적이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덕기가 아버지 상훈의 이중적 행태를 부정하는 것은 필순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덕기는 아버지처럼 축첩을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되뇌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개화되었지만 봉건주의적 인물에 다름 아닌 아버지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온화한 성격 때문에 할아버지 조의관의 신뢰를 받고 가문의 명맥과 자본을 지킬 인물로 낙점이 된다. 덕기는 할아버지가 봉건적 인물이라는 것도 인지하지만, 할아버지의 권위에는 도전하지 않고 금고와 사당의 열쇠를 물려받는다. 그 역시 가족을 생계와 생활의 근거인 공리적인 의미로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덕기가 할아버지의 봉건적 사상까지 이어받는 것은 아니다. 그는 가문의 자본을 이어받음으로써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다른 세대의 삶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경애와 필순의 가족을 보자. 공리적 가족주의에서는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집안의 남성 가장은 가족의 경제적인 역할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전쟁 등 역사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아버지의 부재나 무능으로 ‘아버지의 권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삼대』에 등장하는 조의관, 상훈, 덕기의 관계 그리고 경애와 필순의 가족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무능의 혼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여성들의 활약으로 아버지의 부재 혹은 무능이 은폐되기도 한다. 예컨대, 경애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인물이지만 사회주의 운동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후 고등교육을 받고 교사생활을 통해 여성 가장으로서 생계를 이어가지만 상훈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의 아버지, 즉 남편의 부재도 경험하게 된다. 출산 후 교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어머니와 아이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 여급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는 필순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필순의 아버지는 사회주의 운동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한다. 아버지의 경제적 무능으로 인해 필순은

공장에 다니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덕기의 유학 제안도 마다하는데, 자신이 유학을 가면 가족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혼란의 시기 가장이 부재하거나 무능한 경우 여성들은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 희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희생을 통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데올로기의 내면화는 자연스럽게 가장의 부재와 무능을 희석시키고 은폐해 가부장적 가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삼대>에 등장하는 필순의 가족은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당시의 복잡다단한 사회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필순의 희생은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있다.

V. 가족사 소설로서 『삼대』의 의미

지금까지 가족 담론을 통해 『삼대』를 분석해 보았다. 1920년대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흑기이면서 봉건주의와 근대 자본주의의 이념과 가치가 혼재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사람들은 생계와 생존의 근거를 가족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가족의 공리적 기능을 중시하는 가족주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삼대』에서 1대인 조의관은 봉건적 가치를 중심으로 가문의 명예라는 공리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반면 상훈은 개화된 기독교인으로 가문의 족보와 사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족을 생존과 소비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인식한다. 덕기에게 역시 가족은 생존과 생활의 근거인 공리적인 가치가 중요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순성과 이중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열망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래와 필순에게 가족은 가장의 부재 혹은 무능함을 경험하게 하는 공간이었다. 경래는 사회주의 운동으로 사망한 자신의 부친이 부재하는 경험을 하며, 아이 아버지인 상훈의 부재와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

황에서 자신만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여급 생활까지 하게 된다. 필순의 경우 아버지가 존재는 하지만 무능력해서 생계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며, 공장에 다니면서 가족을 책임진다. 덕기가 공부의 기회를 주려고 하지만, 가족의 생계 때문에 이를 거절하게 된다. 이는 필순이 가장의 무능이라는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희생을 통해 가장의 무능을 은폐하고 가부장적 가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대』는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가족사 소설이다. 그런 만큼 이 작품은 가치관이 혼재해있던 시기의 가족 간의 갈등과 충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봉건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되던 시기의 가족의 모습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당시의 가족의 생활상과 가치관의 차이와 갈등 등을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보여줄 뿐 아니라 덕기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과 극복의 가능성도 보여 준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가족을 떠난 삶은 상상할 수 없으며, 또 시대를 막론하고 세대 간의 갈등과 충돌이 그 형태와 내용을 달리해 반복되고 있다. 『삼대』가 오래전 쓰여진 작품이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 가족론』, 까치, 1990.
- 장경섭, 『가족, 생애, 정치경제-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2009.
- 조혜정 외, 『성, 가족 그리고 문화』, 집문당, 1997.
- 함인희, 「사회변화와 가족」,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2001.
- 현택수, 『문학과 권력-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나남출판사, 1998.
- 라마자노 글루, 『푸코와 페미니즘-그 긴장과 갈등』, 최영 외 역, 동문선, 1998.
- 미셸 바렛·메리 메틴토시, 『가족은 반회적인가』, 김혜경 역, 여성사, 1994.

